

# 스마트공장 구축, 디지털 경제 전환 해법

### 전북도·전북중기청·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참여기업 모집 중 개발 역량 보유 도입기업, 단독 신청 가능·동일 연도에 신규 구축 고도화 가능

전북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 및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진재, 이하 전북TP)는 기간 협업을 통해 전북지역 제조 현장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지난 2월 13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통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해 제조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 경제부처 연두 업무보고

(20.2.17.)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우선 이행 계획으로 발표됐다.

그간 정부와 전북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307개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했고, 2020년에는 122개 구축(2019년 93개사, 31%)을 목표로 160억원(국비 124/지방, 도비 36)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기업들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이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과 기구축된 공장의 시스템 고도화 및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전북 지역에서 93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사업 신청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부와 전북도는 지원 한도액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65%(국비 50%+도비 15%)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랐다 지원내용은 공급기업·도입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이 필수였으나 개발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운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물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 연도에 신규 구축과 고도화, 2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업에게는 희소식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의 지원비율이 전년보다 10% (15%)포인트로, 기업의 사업비 부담비율은 전년(40%)보다 완화된 35%가 될 예정이다.

안남우 청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해 우리 지역의 미래 제조업 경쟁력은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는 전북중기청(063-210-6443) 및 전북TP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063-832-6049)로 하며,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5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전주 인코테크(사진 왼쪽)와 비케이시에서 소공인들의 자금지출 고취 및 신뢰구축으로 소공인의 성공모델을 널리 알리고자 현판식을 개최했다.



백년소공인 선정 축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백년소공인 선정식에서 소공인 대표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소공인 자공심 고취로 성공모델 '널리 알린다'

### 전북중기청, 전주 인코테크·비케이시 백년소공인 현판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5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전주 인코테크와 비케이시에서 소공인들의 자공심 고취 및 신뢰구축으로 소공인의 성공모델을 널리 알리고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안남우 청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업체대표를 포함한 지역 소공인들이 참여했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인코테크 과 일명 대표는 CNC선반 및 머시닝센터 정밀가공 및 3차원 측정기 등을 보유해 특수난삭소재 가공 노하우 등 숙련 기술 보유로 주요정밀 납품 및 해외 협력 및 구매처 확보를 위해 베트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과일명 대표는 "정밀가공분야의 기술 계승을 위해 그동안의 오랜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후배 양성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벤처기업으로서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력 향상에 전념하고 싶다"는 신념을 밝혔다.

비케이시는 LED 스마트 시스템 조명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터널 등을 포함한 기술제품을 개발해 다수의 특허 보유와 우수 조달품목을 다수 확보한 기업이다.

백년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환경 속에서도 장 인정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소공인 가운데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

가해 선정한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용자금리 인하 혜택 및 컨설팅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고 전주중기청 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업환경개선사업도 지원 받는다.

전북지방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갖고 혁신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결과의 산실"이라며, "소공인들의 성공 모델로 육성돼 지속적인 성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기 지원방안 논의

### 중기중앙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28일 발표한 정

부의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업종별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특별고용위험중지 지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김기문 회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하여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제 및 중소기업공개사업기금 등 대출 만기연장과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4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재균티슈 6천개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 형광실크 이용 보안기술 개발

### '위조 의약품 방지 인증 보안솔루션' 농진청,美 퍼듀대학교와 공동 연구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국 퍼듀대학교와 공동 연구로 형광실크를 이용해 '위조 의약품 방지 인증 보안솔루션'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형광실크를 이용한 합균 다중기능성 개발'로 '형광실크단백질'과 고차원 보안장치인 '물리적 복제 방지(physical undonable function) 기술'을 융합한 정품 약 인증기술이다.

그동안 약 포장에 바코드, QR코드 등을 인쇄해 정품과 위약을 구분했으나 이러한 보안 방식은 복제나 해킹이 쉽고, 포장을 제거했을 때 내용물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청색, 녹색, 황색, 적색 형광단백질이 각각 융합된 누에의 누에고치에서 형광실크단백질(피브로인)을 추출한 후 이것을 가지고 마이크로 미세입자 형태로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마이크로식별자'를 만드는 것이다.

마이크로식별자는 어떤 물건을 추적하거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 입자를 말한다. 마이크로식별자를 알약 표면에 붙이면 스마트폰이나 리더기를 이용해 정품 인증은 물론 제조사, 제조일, 성분, 유통기한 등 제품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약 일체형 인증 방식으로 식별자를 떼지 않고도 약을 복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위약 방지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인증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 (IF 11.880)' 2020년 1월호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심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대량의 정보를 담은 고차원 보안 식별자를 의약품에 붙여 제조하면 포장 수준이 아닌 소재 수준에서 위약 제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라며, "이 기술로 나날이 늘고 있는 위변조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이 6일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 전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창구 운영

### 오늘부터... 신속 지원 위한 빠른 상담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자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전담창구를 통해 '코로나19 이력사피해기업 지원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코로나 관련 대출상품에 대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임용택 행장은 "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현재

의 위기극복에 직인 하나하나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은행의 역할 제고를 위해 일선 영업점에서 다른 업무보다 코로나19 관련 상담과 지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금융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경진원,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중기 지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전북경제 상황에 맞서 온라인 화상상담 및 온라인 교육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최근 전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세계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전북도는 총체적 방역체계로 코로나19의 확산 속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내 경제 상황이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 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대면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예비)창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재교육이 늦어져 기업의 위기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진원은 우선 코로나19로 촉발된 도내 수출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수출지원 플랫폼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도입

했다.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대면 상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채널 확대를 도모한다. 더불어 기 구축된 전라북도 통상거점센터(중구, 베트남 등)와 해외 현지 파트너사(30개국 50개소)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미국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이 드인차이나'의 대체상품시장 진출과 신남방(베트남, 인도 등) 및 신북방(러시아, 동유럽 등) 같은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진원은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에 입점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했고, 입점교육, 계정운영, 제품 등록 및 판매, 제품홍보 등에 대한 교육과 판매를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